『종교와 문화』 제21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1, pp. 103-119

페티시즘: 개념의 역사와 선교지 한국에서의 의미

방원일*

1. 들어가는 글
2. 개념의 출현
3. 페티시즘 이론의 발달
4. 한국 선교지에서의 의미
5. 맺음말

1. 들어가는 글

페티시즘은 1760년에 샤를 드 브로스(Charles de Brosses)에 의해 제안된, 가장 오래된 종교학 이론 중 하나이다. 종교학계에서 이 용어의 종교기원론으로서의 이론적 가치는 소멸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용어는 현대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력을 지닌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러 분과에 걸친 이 용어의 복잡한 역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정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종교학과 신학에서 페티시즘의 번역어로는 서물숭배(庶物崇拜), 배물론(拜物論)과 같은 표현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주물숭배(呪物崇拜)가 주로 사용된다. 경제학에서는 물신숭배(物神崇拜)로 번역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절편음란증, 이성물애 등의 표현이 있으며 그냥 페티시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이 용법은 미술평론에서도 사용되며, 포르노 산업에서도 하나의 장르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정리해보면 '페티시즘'이라는 동일한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분야에 따라 주물숭배, 물신숭배, 페티시즘(혹은 페티쉬즘) 등으로 달리 번역되고 있는데,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용어로 통일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1] 필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강사

1) 이 글에서는 편의상 '페티시즘'으로 통일하였다.

자는 이 글에서 이 용어가 위와 같은 복잡한 지형도를 이루게 된 개념의 역사를 종교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거기에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또 하나의 용법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지 한국에서 사용했던 용법이다.

이 글의 목적은 페티시즘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서양에서 생성되어 발전한 한 개념이 한국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2] 이를 위해 이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서양인이 서아프리카인과의 만남을 통해 페티시즘 개념이 출현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고, 둘째 부분은 그 개념이 종교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발달한 양상을 살피는 것이며, 셋째 부분은 그 개념이 19세기말 한국에서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이 개념에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용어의 핵심을 이루는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페티시즘 개념사에 대한 선구적인 논문을 쓴 피어츠(William Pietz)가 강조하였듯이, 그것은 이 용어가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정황에서 출현하였으며, 타자가 특정한 물질에 부여하는 가치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3]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만남의 측면이다. 개념이 출현한 서아프리카, 개념이 발달된 유럽, 그리고 개념이 적용되었던 한국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만남이 이 개념을 어떻게 빚어왔는지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2. 개념의 출현

2-1. 페이티소, 페티소, 페티시

페티시 개념은 16, 17세기 서아프리카 연안이라는 문화 간의 만남의 공간에서 출현하였다.[4] 간단히 말하면 이 출현은 포르투갈어가 서아프리카 신앙에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분해서 보면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 상인, 아프리카 중개상, 북유럽 개신교 상인이라는 세 주체의 활동을 분

---

2) 서양 근대의 맥락에서 페티시즘 개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볼 것. 장석만, "페티시즘의 개념사: 그 발명과 의미망", 『종교문화비평』 9 (2006년), pp. 11-29.

3) William Pietz, "The Problem of the Fetish, I," *RES: Anthropology and Aesthetics* 9 (1985), p. 2, p. 10.

4) Pietz, "The Problem of the Fetish, I," p. 5.

별할 수 있다.

대항해시대 초기인 15세기말부터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식민기지를 건설하고 상거래와 노예무역을 하였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서아프리카인들의 종교적 대상과 신앙 행위를 '페이티소'(feitiço: 마법witchcraft에 속하는 대상이나 행위)라고 지칭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아프리카인과 유럽인 사이에 형성된 매개 공간에서 활성화되었다. 즉 "이 지역의 상호문화적 교통이 점차 아프리카 중개상과 물라토에 의해 중재되기 시작하면서 피진어(pidgin) '페티소'(Fetisso)가 실용적으로 설명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고 이론적인 함축도 지니게 되었다."[5] 영문 자료에서는 페티소가 1613년부터 등장한다.[6]

17세기 이후 북유럽 개신교 상인들이 포르투갈 대신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페티시에 대한 경멸적 의미, 특히 우상숭배로서의 의미가 강화되었다. 이들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기독교, 이슬람, 토착종교가 혼재해 있는 상황에 경악하였다. 그중에서도 토착종교를 믿는 우상숭배자(idolater)들이 목에 페티시라고 불리는 가죽주머니를 달고 다닌다고 묘사하였다. 이 맥락에서 우상숭배와 페티시즘은 동일시되었는데, 이러한 가치평가에는 당시 개신교가 가톨릭을 공격할 때의 사용한 우상숭배라는 논리가 사용되었다. 다음 인용은 19세기 막스 뮐러의 언급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개신교적 논리 적용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왜 포르투갈 항해사들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지난 세기의 대중적 가톨릭이라는 변형된 기독교인인 그들은, 황금 해안의 흑인들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페이티소(feitiço)를 단번에 분간해낼 수 있었을까? 답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페이티소, 즉 부적에 완전히 친숙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부님들께 축성 받은 묵주, 십자가, 성상을 갖고 왔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 자신이 페티시 숭배자들이었던 것이다.[7]

---

5) William Pietz, "The Problem of the Fetish, IIIa: Bosman's Guinea and the Enlightenment Theory of Fetishism," *RES: Anthropology and Aesthetics* 16 (1988), p. 108.

6) "이곳에는 페티소 혹은 신이라고 불리는 지푸라기 반지들이 많이 놓여 있다." Samuel Purchas, *Pilgrimage*, VI.xv.651; Thomas A. Sebeok, "Fetish," in *A Sign Is Just a Sig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p. 116에서 재인용.

7) F. Max Müller, *Lectures on the Origin and Growth of Religion*, 3rd ed. (London: Longmans, Green, 1901[1878]), p. 63; cf. Pietz, "The Problem of the

여기서 유럽인에게 타자인 서아프리카인들은 개신교의 타자인 가톨릭과 동일시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페티시즘 개념 형성 과정에서 유럽 종교개혁기에 개신교가 가톨릭을 우상숭배라고 타자화하던 논리가 서아프리카 신앙에 적용된 것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2-2. 페티시와 페티시즘

페티시즘 이론을 제안한 드 브로스를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는 서아프리카 접촉 지역에서 그 이론의 전거가 된 자료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자료에는 이후 이론가들의 작업의 바탕이 되는 비교의 방향성이 이미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8] 그러한 자료를 제공한 대표적인 인물은 1688년부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근무하고 1702년에 기니아 지역에 대한 책을 출판한 빌렘 보스만(Willem Bosman)이었다. 그의 책은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페티시에 대한 개념을 얻는 주된 자료가 되었다.[9] 그의 설명에서 강조된 것은 페티시 종교가 이익이라는 진정한 사회질서의 도착(倒錯)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10] 페티시에 대한 초기 자료는 상인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경제적 가치의 문제가 처음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페티시가 페티시즘으로 이론화된 것은 프랑스 계몽주의자 드 브로스가 1760년에 출판한 <<페티시 신 숭배에 관하여>>를 통해서였다.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국한하여 사용되던 이 용어를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였고, 이것을 기초적인 종교 형태로서 제시함으로써 이후 종교기원론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비록 이 용어[페티시즘Fétichisme]가 정확한 의미에서는 아프리카 흑인 종교만

Fetish, IIIa," p. 108.

8) 데이비드 치데스터는 학계의 종교학자의 작업 이전에 접촉 지역에서 비교작업을 여행가, 상인, 선교사, 식민관료 등을 프론티어(frontier) 종교학자라고 부르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데이비드 치데스터, 심선영 옮김, 『새비지 시스템: 식민주의와 비교종교』(경세원, 2008), pp. 41-50.

9) Pietz, "The Problem of the Fetish, I," p. 5.

10) Pietz, "The Problem of the Fetish, IIIa," p. 121.

> 을 특별히 지칭하기는 하지만, 나는 이 용어를 신으로 변한 동물이나 비활성 물건-이 물건들이 신보다 열등한 경우에도-을 숭배하는 어떤 민족에도 사용하고자 한다.……왜냐하면 이러한 형태의 사유는 하나의 일반 종교에 속하는 동일한 기원을 가진 것으로 이전부터 전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11]

이상의 페티시와 페티시즘 개념의 형성과정의 논의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식민지에서 일어난 상이한 경제적 체계의 만남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그것은 아프리카인들이 물건에 부여하는 독특한 가치에 대한 평가였다. 이때 관찰자가 문화적으로 전제한 가치 체계와 관찰 대상의 문화에서 부여되는 가치 체계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독특성은 이해되지 못했고 전도되고 혼란스러운 가치 부여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당시 유럽인들은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여섯 가지의 물건의 가치들을 혼동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여섯 품목은 종교 의례적 물건, 미적이고 에로틱한 물건, 경제적 가치를 갖는 물건, 유사의학적 성격의 부적, 맹세에 사용되는 물건, 유럽인들의 기술적인 물건들이었다.[12]

3. 페티시즘 이론의 발달

3-1. 종교학의 페티시즘

19세기 말에 종교학이 출현하고 여러 종교기원론들이 등장할 때, 페티시즘은 이미 백년도 더 된 기성이론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의 바탕으로 작용하면서도 극복되어야 할 이론의 위치를 가졌다. 예를 들어 1869년에 토테미즘 이론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잘 알려진 맥레넌(John Ferguson McLennan)은 토테미즘을 페티시즘과 족외혼의 결합이라고 정의하였다.[13] 맥레넌의 이론적 구도에서 페티시즘은 기본적인 종교 형태를 나타내는 이론적 자원으로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학 이론이 발달함에 따라 페티시즘은 점차 경쟁 이론들에 의

---

11) Müller, *Lectures on the Origin and Growth of Religion*, p. 61에서 재인용.

12) Pietz, "The Problem of the Fetish, IIIa," p. 109.

13) John Ferguson McLennan, "The Worship of Plants and Animals," *Fortnightly Review* 6 (1869), pp. 422-23.

해 밀려나는 낡은 설명으로 전락하였다. 초기 종교학자들은 자신이 제안하는 종교적 형태가 가장 원시적인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이전까지 가장 원시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페티시즘 이론을 공박하였다. 당시 대표적인 종교학자였던 막스 뮐러(Max Müller)는 1878년에 행한 강연 <<종교의 기원과 발전>>의 제2강에서 "페티시즘이 종교의 원시적 형태인가?"라는 제목으로 페티시즘 이론을 비판하고 대안적 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14]

그런데 뮐러가 이 논의 중에 페티시와 우상을 개념적으로 구별하였다는 점을 잠시 지적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그는 둘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엄밀하게 말해 페티시는 그 자체로 초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와 반대로 우상은 원래는 형상만을, 다른 것의 모사(similitude)나 상징을 의미한다."[15] 뮐러의 구분은 중세 포르투갈어에 존재했던 페이티소와 우상의 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 구분에 따르면 페티시는 성스러움이 물질을 통해 드러난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우상은 아이콘으로서의 유사성을 의미한다.[16]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선교 현장에서 페티시와 우상의 구분은 무의미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문학이나 미술 비평에서 뮐러의 구분이 지금도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17]

2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종교학계에서 페티시즘의 종교기원론으로서의 생명력은 거의 다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1894년에 로버트슨 스미스는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페티시즘은 그저 유행하는 말일 뿐 정확한 의미라곤 없는 말"이며 "단지 매우 야만적이고 경멸적인 무언가를 의미할 뿐"이다.[18] 다만 현재 이 용어는 진화론적인 맥락이 아니라 종교문화의 기본적 양태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판데르레이우(Van der Leeuw)는 힘으로 가득 찬 물질적 대상에 대한 경외가 어린이의 심성, 원시종교, 고대종교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19]

---

14) Müller, *Lectures on the Origin and Growth of Religion*, lecture 2.

15) Müller, *Lectures on the Origin and Growth of Religion*, p. 66.

16) Pietz, "The Problem of the Fetish, I," p. 7.

17) 문학 비평과 미술 비평에서 뮐러의 구분이 사용된 예로는 다음을 볼 것. David Simpson, *Fetishism and Imagination: Dickens, Melville, Conrad* (Ba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 13; W.J.T. 미첼, 임산 옮김, 『아이코놀로지 이미지, 텍스트, 이데올로기』(시지락, 2005), pp. 254-62.

18)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nd ed. (London: Adam & Charles Black, 1894[1889]), p. 209.

19) 반 델 레에우, 손봉호 & 길희성 옮김, 『종교현상학 입문』(분도출판사, 1995), pp.

3-2. 경제학과 심리학의 페티시즘

페티시즘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사유 내에서 각각 독특한 의미를 부여받아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사실 현재 페티시즘 용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종교학 내의 논의보다는 이들에서 기인한 용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학과 심리학 분야의 이론적 발전을 제대로 고찰하는 것은 이 글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저술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논의를 제한하도록 하겠다.

마르크스 사상에서 페티시즘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생산품의 물리적 성질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그것은 물체와 물체의 관계라는 환상적인 형태를 취한다. 인간 노동의 산물이 상품의 세계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부여받고, 그 자신들끼리 또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는 독립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의 세계에서 인간 두뇌의 산물이 그 자체의 생명을 부여받는 양상과 마찬가지이다.[20] 마르크스는 이처럼 노동생산물이 본연의 가치(사물들 간의 관계) 대신 전도된 가치(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부여받아 상품이 되는 현상을 페티시즘이라고 부른다. 그는 페티시즘을 다룬 당대 저서들을 탐독한 결과 페티시즘의 핵심이 전도된 경제적 가치의 부여라는 점을 간파하였다.[21] 이른바 야만인들의 전도된 가치 부여를 서양 근대의 자본주의의 근간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개념 사용에는 중요한 반전이 함축되어 있다. 그것은 타자화의 수사를 그 주요 사용자에게 되돌려 사용한 전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22]

한편 프로이트는 페티시즘의 성적인 의미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절편음란물[페티시]은 단순한 남근의 대체물이 아니라 절편음란증 환자의 어린

51-56.

20) 칼 마르크스, 김영민 옮김, 『자본 I-1』(이론과 실천, 1987), pp. 90-91.

21) 미첼, 『아이코놀로지 이미지, 텍스트, 이데올로기』, pp. 249-50.

22) 미첼, 『아이코놀로지 이미지, 텍스트, 이데올로기』, p. 273.

> 시절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가 나중에 상실되어 버린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남근의 대체물이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상실되어 버린 남근을 절편음란물을 통해 부활시키고 보존하려는 욕구가 절편음란증[페티시즘]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좀더 분명하게 설명하면, 절편음란물이란 남자아이가 한때 그 존재를 믿었던 여성의 남근, 혹은 어머니의 남근의 대체물이다.[23]

이 개념은 남자에게는 거세된 어머니의 성기에 대한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한다는 프로이트 특유의 전제 아래서 성립된다. 그러나 대중적인 차원에 수용된 프로이트의 용법은, 여성의 남근의 대체물이라는 다소 복잡한 설명보다는 정상적인 성적 욕망의 대상이 주변의 다른 물건으로 전이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술을 비롯한 문화비평에서, 그리고 포르노 산업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이러한 성적인 의미의 페티시즘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욕망이 다리와 같은 신체 기관, 스타킹, 구두, 기타 속옷에 대한 관음증적인 집착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페티시즘으로 일컫는다.

3-3. 선교 현장의 페티시즘

20세기 이후 종교학계에서 페티시즘이 이론으로서의 힘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19세기말, 20세기초에 급격하게 확대되었던 개신교 선교 현장에서는 이 용어가 선교지역 신앙행위를 지칭하는 언어로 생명력을 얻어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선교사들이 종교적 지식으로서 알고 있었던 페티시즘은 당대의 종교학 서적에서 얻었다는 점에서 종교학적 용어의 파생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선교지의 맥락에서 이 용어가 적용되고 다른 양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용법은 위에서 열거한 것들과는 구분되는 제4의 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페티시즘이 전도된 가치 부여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지님을 보았는데, 선교사들의 용법에서는 대상에 거짓 가치를 부여한다는 불만이 가장 강하게 표출된다.[24] 뮐러의 구분과 달리 선교 현장에서 페티시와 우상은 철저하게 동일

---

23)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옮김,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열린책들, 2003), p. 320.

24) Webb Keane, *Christian Moderns: Freedom and Fetish in the Mission Encount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p. 180; Webb

시되어 페티시에 대한 비판은 우상파괴로 연결된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한 개신교선교사들의 기록을 분석한 킨(Webb Keane)에 따르면, 선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우상숭배와 동일시되는 페티시즘은 열등한 대상에 부적절한 경배나 공포를 부여하는 행위로 인간 주체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25] 이처럼 개신교 선교 현장에서 획득된 이 용어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한국에서의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한국 선교지에서의 의미

한국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활동한 것은 19세기말부터였다. 특히 선교사 알렌이 입국한 1884년부터 1910년 이전의 시기까지 한국 문화와 종교에 대한 선교사들의 서술이 다량으로 등장하였는데, 우리가 살펴볼 페티시즘에 대한 언급도 이 만남의 시기에 등장한다. 개신교 선교사 기록에 나타난 페티시즘 개념은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우상파괴적 용법으로, 한국의 선교 현장에서 특히 강렬하게 나타났다. 페티시가 갖는 다른 용법은 우상파괴적 용법이 갖는 파괴적인 함축 없이 묘사적 술어로서 사용된 것이었다. 비록 지시 대상은 전자의 용법과 다르지 않지만 한국종교를 학술적으로 묘사하려는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6]

4-1. 전도된 가치 부여

앞에서 우리는 타자가 물건에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서 페티시라는 용어가 출현하였음을 보았다. 한국에서 활동한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의 무교(巫敎)를 처음 접할 때의 관심 역시 경제적인 것이었다. 최초의

Keane, "Calvin in the Tropics: Objects and Subjects at the Religious Frontier," in Patricia Spyer (ed.), *Border Fetishisms: Material Objects in Unstable Spaces* (London: Routledge, 1998), pp. 13-14.

25) Keane, *Christian Moderns*, p. 225.

26) 선교사적인 용법의 페티시는 19세기말과 20세초 문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에도 그러한 용법의 흔적을 볼 수 있다. 2008년에 개봉된 한국 영화 <페티쉬>(손수범 감독, 송혜교 주연)에서 페티시는 다름 아닌 무당이 사용하는 방울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내한 선교사인 알렌(Horace N. Allen)은 한국의 무당들이 신자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착취를 한다고 비난하였다.[27] 무당의 굿이 경제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한국 전통에 비판적이었던 선교사들에게 공유된 것이었다. 비록 페티시즘이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에게 전도된 경제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인지되었던 것이다. 개신교 선교사의 기록은 아니지만 1901년 한국을 방문한 독일 기자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가 한국 민간신앙의 상징물들을 관찰한 기록에는 이 물건들의 '경제적 가치'가 언급된다.

> 사람의 손이 닿는 나뭇가지에는 온갖 종류의 천 조각이나 종잇조각, 그와 유사한 잡동사니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각양각색으로 걸려 있었다. 미신을 믿는 나그네가 낡은 짚신을 신성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소박한 신단의 나뭇가지에 엄숙한 축성물을 걸어놓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귀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귀신을 달래는 선물이라고 해야 별 가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 짚신 한 켤레는 여기서 8원인데, 2500원은 1달러에 달하며 3분의 2페니히가 된다. 그렇다면 낡은 짚신 한 켤레는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짐작컨대 신에게 바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28]

한국 민간신앙과 무교의 상징물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고 그 보잘 것 없음을 비판하는 것은 당시에 활동하던 개신교 선교사들도 공유하던 생각이었다. 이 사실은 개신교 선교사 노블 부인(Wilcox Mattie Noble)의 1897년 4월 8일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가정신앙의 대상물들을 '귀신에게 바치는 페티시'로 명명하면서 그 내용물에 대한 호기심을 보인다.

> 다른 집에서는 여전히 많은 페티시가 집안에 있었다. 하나는 벽에 걸려 있는 두 개의 작은 쌀 봉지였는데, 이것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생명의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긴 시렁 위에는 위를 덮은 바구니 두 개와 질항아리 한 개가 있었다. 나는 그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을 살펴서 이러저러한 때마다 귀신들에게 무엇을 바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집의 안주인은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며, 귀신들(spirits)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하느님을 섬길 수는 없음을 설명해주자, 그녀

---

27) Horace N. Allen, "Some Korean Customs: Mootang," *The Korean Repository* 3 (1896), pp. 163-65.

28) 지그프리트 겐테, 권영경 옮김,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책과함께, 2007), pp. 109-110.

> 는 그것들을 내려 열어 보였다. 거기에는 오랜 세월 먼지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한 바구니 안에는 올이 성긴 아마포가 담겨 있었는데,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바구니 안에는 안주인이 35년 전 시집올 때 입었던 저고리와 치마도 들어 있었다. 또 다른 바구니 안에도 수십 년 전에 넣어둔 오래된 옷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 역시 여러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질항아리 안에는 오래 전에 부패된 밥과 떡이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 담겨 있었다.[29]

한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지만, 노블 부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대상에 한국인들의 가치와 숭배가 부여되는지 알고 싶었다. 글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상 암시되는 것은 그녀의 탐사의 결과 한국인이 소중하게 모시는 것은 그녀가 보기에 하찮은 물건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 없는 물건에 대한 전도된 가치 부여라는 페티시즘의 고전적인 의미가 통용되고 있다.

4-2. 파괴 대상으로서의 페티시

민간신앙에서 사용하던 상징물, 특히 무당이 굿에 사용하던 물건을 버리고 파괴함으로써 개종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것은 대표적인 선교 내러티브였다. 예를 들어 선교사 크램(W. G. Cram)은 한 무녀의 개종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 교회 지도자는 그 무녀에게 무구를 파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이교도 숭배에서 사용되었던 물건, 그릇, 옷 등 모든 것을 없애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30] 여기서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 새 사람을 입는 것"(4:22-24)을 말한다. 무녀는 지도자의 권유에 따라 집안 물건들을 모조리 불사름으로써 옛 사람을 벗어버림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티시로 명명된 여겨진 민간신앙 대상은 선교 과정에서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다수의 선교사 문헌에서 페티시는 한국인이

---

29) Wilcox Mattie Noble, *The Journals of Mattie Wilcox Noble 1892-1934* (Seoul: Institute for Korean Church history, 1993), p. 65; 매티 윌콕스 노블, 강선민 & 이양준 옮김, 『노블일지: 미 여선교사가 목격한 한국근대사 42년간의 기록』(이마고, 2010), pp. 91-92.

30) W. G. Cram, "Rescued after Years of Bondage," *The Korea Methodist* 1-11 (Sept., 1905), p. 149.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근절해야 할 구습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무당들이 사용하던 무구(巫具), 일반인들의 가정집에 모셨던 터주나 조왕과 같은 신앙 대상들이 페티시라고 불렸으며, 이것을 불태우는 행위는 한국인의 개종에 대한 보고서에 등장하곤 했다.[31]

이 파괴 활동이 극적으로 언급된 예로는 1906년 선교사 루이스(E. A. Lewis)가 보고한 "페티시 불사르기"(A Holocaust of Fetishes)를 들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선교 활동을 보고한다.

> 나는 장지내에서 주일학교 여성들을 만나 그들과 이웃 마을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페티시를 치워 버리는 것을 도왔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이 퍼포먼스를 구경했다. 속장(屬長) 박씨의 아내 마르타가 앞장섰다. 그녀는 바가지를 하나 달라고 하고 벽에서 자루를 내려놓더니 그 안의 쌀을 비워내었다. 그것을 돌려주며, "이 정도면 저녁으로 충분할거야."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마당 한 편으로 나가 빈 쌀겨(쥐가 곡식을 다 파먹었다)가 반쯤 차 있는 항아리 위에 덮여 있는 작은 짚 지붕을 뜯어냈다. 그녀는 이것을 불에 넣어 비우고, 계속해서 더러운 실로 반쯤 덮여있는 막대 하나를 부러뜨리고 쌀겨와 함께 집어넣어 모두 태워버렸다.[32]

여기서 페티시는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 격렬한 파괴 행위는 한국인 신자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선교사도 동행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위의 글에서 주목할 점은 우상파괴 행위가 의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루이스는 페티시를 불태우는 행위를 퍼포먼스(performance)로 표현하였으며 뒤에서는 의식(ceremony)이라고 표현하였다. 제목에서 표현되듯이 이 행위는 이교도의 신앙 대상을 불살라 하느님께 올리는 번제(燔祭, holocaust)이다.

4-3. 서술적 용법으로서의 페티시

20세기초 한국종교 연구를 주도했던 개신교 선교사들로는 헐버트, 게일,

---

31) Sung-Deuk Oak, "Healing and Exorcism: Christian Encounters with Shamanism in Early Modern Korea," *Asian Ethnology* 69-1 (2010), pp. 103-5; Laurel Kendall, *Shamans, Nostalgias, and the IMF: South Korean Popular Religion in Mo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 p. 5.

32) E. A. Lewis, "A Holocaust of Fetishes," *The Korea Mission Field* 2-7 (May, 1906), pp. 134-35.

언더우드, 존스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페티시즘 개념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한 이는 "한국 페티시에 대한 권위자"라고 불렸던 존스(George Heber Jones)였다.[33] 별다른 개념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글에서 페티시는 한국 민간신앙의 상징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종교라는 연구대상을 서술하는 학술적 술어로서 의도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1895년도 글에서 처음으로 페티시를 언급한다. "귀신은 페티시로 표상(represent)된다. 지푸라기 더미, 쌀 종이, 호리병, 낡은 항아리나 버려진 신발이 초자연적인 개념을 상징하기 위해 눈에 띄는 곳에 걸려 있다."[34] 그리고 1901년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주물숭배를 한국 민간신앙의 특성으로 꼽았다.

> [무속의] 영적 존재 대부분은 사람들의 눈에 어떠한 물질적 대상, 즉 페티시(fetich)로 대표되는데, 이 때문에 페티시즘(fetichism)이 한국 무속의 중요한 특성이 된다. 페티시는 무엇이 되었든 한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특정한 신성으로 뒤덮인다. 귀신과 페티시는 숭배자의 마음속에서 동일화되어서 무엇이 더 우선성을 갖는지 분간하지 힘들 정도이다. 그러나 페티시가 아무리 세월을 통해 타락하고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성스럽고 한국인들은 그것을 함부로 대하기를 두려워한다.[35]

존스는 페티시즘을 한국 민간신앙의 주된 특성으로 꼽았으며, 이 견해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널리 수용되었다. 존스는 어떤 대상이든 페티시로 선택될 수 있다는, 상징과 상징물 간의 자의적 관계를 언급한다. 그리고 그 상징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신자의 내면에서 상징 대상과 거의 동일시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그 성스러움이 보존되고 있음을 말한다. 만일 페티시즘에 대해 경멸적 시선을 가졌다면 이러한 내용은 대상의 자의성, 신앙 대상과의 혼동 등의 내용으로 비판적으로 서술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비판을 삼가고 이 대상에 대한 한국인의 두려움을 들추어내려

---

33) Homer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London: Page & company, 1906), p. 412.

34) Anonymous [attributed to George Heber Jones], "Obstacles Encountered by Korean Christians," *The Korean Repository* 2-4 (April, 1895), p. 147.

35) Jones, "The Spirit Worship of the Korea," p. 41. 존스는 1907년 글에서도 '주물숭배'를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하였다. George Heber Jones, *Korea: The Land, People, and Customs* (New York: Eaton & Mains, 1907), p. 49.

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의 페티시 언급은 선교 현장의 쓰임새를 참작한 것이되 한국인의 신앙대상에 대한 파괴적인 의도를 담지 않고 종교학적 서술로서 의도된 용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헐버트도 존스를 따라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그는 한국의 고유 전통을 주물숭배라고 지칭하였으며,[36] 무교뿐만 아니라 유교에도 이 용어를 적용하여 위패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조상에 대한 페티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37] 이에 이르면 페티시는 한국종교의 물질적 상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10년 이후 페티시즘의 사용은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비판적인 언급이 등장한다. 예컨대 선교사 무스는 1911년 책에서 "한국의 종교는 단순한 페티시즘이 아니라 정령숭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38] 이는 페티시즘에 대한 당대 종교학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무스가 낡은 이론 대신 당대의 유행이론인 애니미즘을 선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페티시즘 개념의 복잡한 역사를 개관하면서 우리는 이 개념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생각하게 된다. 오랜 기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면서도 공통적으로 유지된 연속성을 꼽는다면, 페티시즘은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맥락에서 발언되었으며 "물질에 대한 전도된 가치부여"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페티시즘에 대한 논의에는 비판적인 것들이 많았으며 그 비판은 대부분 '전도된'이라는 부분에 집중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평가할 때 상대방의 가치체계에 대한 오해가 '전도된'이라는 가치판단으로 이어졌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물질'에 가치가 부여되었다는 것이 페티시즘 개념을 재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선교지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페티시즘의 두 의미는 이러한 반성에 부합한다. 초기에 다수의 선교사들이 생각했던 페티시즘은 타파해야

---

36) Homer B. Hulbert, "Korean Survivals,"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p. 35.

37)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p. 404.

38) J. Robert Moose, *Village Life in Korea* (Nashville, Tenn.: Publishing House of the M. E. Church, South, Smith & Lamar, agents, 1911), p. 190.

할 이교도의 잔재였다. 그것은 물질적 대상에 잘못 부여된 전도된 가치에 불과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종교를 객관적 연구대상으로 보고자 했던 선교사들에게 페티시즘은 객관적 술어로서의 가능성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전도된 가치라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한국 민간신앙과 무교에서 풍부한 일상적 물질들을 통해 성스러움이 표현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한국 무교에 대한 서술에서도 재평가되는 부분이며,[39] 최근에 종교학에서 일고 있는 물질성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는 문제의식을 제공해준다.

주제어: 페티시, 페티시즘, 한국 종교, 만남, 물질성

원고접수일: 2011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5일

39) Laurel Kendall, "On the Problem of Material Religion and Its Prospects for the Study of Korean Religion," *Journal of Korean Religions* 1-1&2 (2010), pp. 93-115.

<Abstract>

Fetishism: The History of Idea and its Meaning in Korea

Won-il Bhang(Seoul National University)

Fetish emerged in the cross-cultural space of the coast of West Africa in 16th and 17th centuries. European traders considered West African's worship as the attribution of reversed values to material objects. Fetish was reported to European intellects through travel reports such as Willem Bosman's book. In 1760, Charels de Brosses generalized this West-African phenomenon into a basic religion and proposed a concept fetishism.

In Religious Studies, fetishism took position as the first theory of religion for centuries, but, since the late 19th century, was considered as an old-fashioned theory. However, it was revaluated in economy and psychology by Marx and Freud. Meanwhile, throughout Protestant missionaries's fields, it acquired more aggressive implication against native's worship.

In the late 19th and the early 20th century, Protestant missionaries in Korea shared this implication, but developed into two ways. In one way, they applied fetishism as an iconoclastic concept against Shamanism. In the other way, a group of missionaries, such as George Heber Jones and Homer Hulbert, tried to set fetishism as a terminology for describing a major character of Korean religion. Their attempts held for a short time, but it foreshadows the scholarly interest in the materiality in Korean religion.

Key words: fetish, fetishism, Korean religion, encounter, materiality